마음의 전철기[Railroad switch, 轉轍機]

(고후10:1~18)

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전철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전철기!
전철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Railroad switch입니다.
철도에서 열차를 다른 선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두 선로가 만나는 곳에 장치한 기계장치.
아시겠지요, 그렇죠?
선로를 다른 선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확 잡아당기면, 레일이 움직이면서 다른 선로 위로 열차를 옮겨 놓는 그런 장치인데.
1990년 6월21일에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경부선 철도 중에서 진의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건 잘 서지 않아요.
그런데 충청남도 연기군에 속한 역인데, 이 역에서 사고가 난 거에요.
서울발 제천행 화물열차와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와의 추돌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경위는, 이제 화물열차가 먼저 서울역을 출발해서 전의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속도로 볼 때에 뒤늦게 출발한 새마을호를 피해 주어야 사고가 안 생기고, 새마을호가

제 속도로 부산을 향해 달려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의역에서 화물차를 대기선로 위로 이동을 시켰어요.
경부선이 한 레일이고 내려가는 하행선이 한 선이니까, 이제 화물열차는 대피선으로 옮겨 놓고 새마을호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데, 새마을호가 110km로 달려서 전의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10km로 전의역으로 진입해 들어왔는데 전철기가 고장이 난 거에요.
전철기가 고장 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선로와 선로 사이를 돌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만, 새마을호가 110km로 그대로 화물차를 옮기기 위해 바뀐 그 대기선로 위로 그냥 치달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물열차를 300m나 끌고 가다가 겨우 섰어요.
그래서 화물열차가 8량 중에서 3량이 선로이탈을 하고, 새마을호 또한 7량 중에서 5량이 이탈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사 2명이 죽고 승객 5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철기가 고장 나서 생긴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도 전철기를 달지 않으면 이런 충돌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이 전철기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충돌하고 있는데도,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인생을 버겁게 살아가는데, 전철기가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이 충돌의 현실적인 내용은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감 우울함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절망스러워요?
다~ 마음의 전철기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도대체 전철기는 무엇이고, 전철기를 달아서 방향을 바꾼다,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이 전철기를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 것인가, 또 도대체 충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과 충돌한다는 것인가? 무엇과 충돌하기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전철기를 꼭 달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방향을 전철기를 통하여 제대로 옮겨줌을 통해서 충돌 없이 매끈하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황과 삶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연보의 얘기를 삽입하듯이 했던 사도바울이 이제 다시금 그 앞에 7장까지 관통하고 있었던 주제, 사도권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변호하는 변호의 톤을 강화시켜 강경한 어조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은 당연히 비난의 내용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난의 내용은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내용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교회 내에서 몇 명,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유대적 율법주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려서 비난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면하면 유순하고'에서 이 '유순하고'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비굴하다, 우유부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얼굴 앞에서는 비굴하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떠나 있으면 편지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제법 큰소리를 뻥뻥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난의 내용이 2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바울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문자적으로 요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고 하는 말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이기적이다, 세속적인 욕망을 속에 감추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이런 문자는 아무나 사용하지 못해요.
바울의 신앙적 개념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대립적인 용어거든요.
이거는 사도바울의 전매특허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알랑거린다 이거에요.
비굴하게 논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면 아주 강경하고 담대하고 제법 큰소리를 뻥뻥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너희의 환심을 사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비난한 것을, 사도바울은 자기의 용어로 '아! 너희가 말하는 내용은 결국은 내 개념으로 이해하면,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 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거짓된 사도라고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말로, 진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본문에 근거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마음의 전철기를 달았느냐, 달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가 관건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뭐지요?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이 만남으로 삶의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뭐 사물,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입어야 될 옷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이런 모든 물건을 만나든지, 아니면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여간 육체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만남들의 내용이 바로 삶이에요.
만남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만남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 되느냐?
마음이 기차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육체가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직접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가 만나는 대상과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육체가 만나는 대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지요.
반응이 유발되어지고, 그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가 만나는 상황과 대상과 사람에 대해서, 아!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이며, 나쁜 것은 어떻게 좋게 개선할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움직

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의 결과 판단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요체가 뭡니까?
육체로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먼저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우리 마음의 희로애락의 감정의 변화이고 지정의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도바울이 '모든 강력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대적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누에가 고치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그래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가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이거든요?
내 육체가 지금 자식문제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이 자식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잘 됐다 잘못 됐다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자식문제라고 하는 육체를 통해 만나는 상황과 나란히,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나란히 서 계십니다.
우리 육체로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접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로 만나는 그 대상과 나란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로 만나는 상황으로 마음이 돌진해 들어갈 것인지, 살아계시면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 갈 것인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체로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는 것은 전철기를 작동하지 않고 있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소위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육체가 만나는 대상을 향하여 돌진해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전철기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가 전철기의 역할을 하면서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앞에 살아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전철기, 십자가 전철기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육체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느껴지는 마음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육체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의지가 없어지고, 판단의 동기가 사라지고, 반응의 동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일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내 마음이 지금 육체로 만나는 상황에서는 막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전철기를 통하여 선로를 바꿔 줘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평강 가운데 임하고, 만족 가운데 임하고, 기쁨 가운데 임하면서, 육체로 만난 상황이 내 일이 아닌 게 될 때에, 그 육체로 만난 상황은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 일이 아닐 때,
그게 아직도 내 일이라서, 내가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마음가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될 때에, 일은 벌어졌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기뻐하고 있고, 만족해하고 있고, 평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바로 제로원의 원리 아닙니까?
십자가에 얽혀 있는 제로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언제나 전철기처럼 작용하는, 그러니까 육체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전철기처럼 십자가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느냐?
지금 내 육체가 만나는 상황과 사람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그 일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육체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돌진해 버릴 때, 서있는 화물차와 새마을호가 충돌하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게 바로 걱정이고 근심이고 우울함이고 절망감이고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절망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아닙니다.
충돌 때문에 그래요, 충돌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내가 육체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당신의 답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십자가 전철기를 통하여 먼저 가지 않고, 육체로 만나는 상황에 대해 내리치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아! 내가 충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갔다면 근심할 일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전철기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사도바울을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한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이론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박 근혜 대통령이 나와 함께 없을 때는, 친구들과 우리들끼리 박 근혜 대통령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3의 대상으로 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 근혜 대통령이 한자리에 있을 때는, 박 근혜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내가 친구와 함께, '아! 박 근혜 대통령 그 사람 말이야, 여자이지만 뭐 그런대로 괜찮지 않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불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개 들고 생각하면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지금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죽음으로서만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내 친구한테 내 다른 친구를 서로 모르는 경우에 소개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앞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제3의 대상을 묘사 하듯이 그렇게 묘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색과 이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살아 계신 분으로서 당신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는 것을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에요, 들은 내용을.

이게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내가 육체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의견이 있는

데,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신 분으로서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하는 이 태도자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려면, 지금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과는 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아내와도 헤어져 있을 수 있고, 누구와도 헤어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평생 헤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대화하는 갈대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어 주는 게 십자가 전철기라는 겁니다.
이 전철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후로는, 십자가 전철기를 100% 작동하심으로써, 언제나 육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전철기를 통해 방향을 틀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먼저 가시고, 거기서 내 일이 아닌 상태가 될 정도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세상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에 십자가 전철기를 닮으로 해서 언제나 마음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